생활현장 속 ‘여리고 기도’

(여호수아 6:1~27)

1.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3.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생활현장 속 ‘여리고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생활현장 속 ‘여리고 기도’

복음은 구원의 티켓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음의 라이프스타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사놓고 집안 한 구석에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하듯이, 복음을 구원의 티켓으로 알고 교회 갔을 때에 의미 있는 말로 듣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구원 티켓을 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복음은 언제나 라이프스타일을 동반하는데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라이프스타일’은 궁극적인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궁극적 가치’는 내게 궁극적으로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되거나 근거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추구함에 있어서 합당한 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 벌기에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은 이렇게 궁극적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결정하게 됩니

다.
그렇다면 선민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궁극적 가치는 우선적으로 내 마음에 밀착되어야 될 존재를 말합니다. 그것이 할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돈을 궁극적 가치로 여길 때에는 심지어 아내와 남편도 그 사이에 끼지를 못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할머니를 떠났다고 합니다. 또는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돈이 필요해서 남편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는데 돈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밀착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궁극적 가치로 믿어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밀착되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으면 궁극적인 가치이신 하나님과는 밀착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을 일로 삼는 것입니다.
궁극적 가치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추구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보내면, 이 땅에서는 공백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메꿔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선민의 라이프스타일이 할례와 유월절과 군대 대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군대 대장이 이 땅에서 내 삶의 문제들을 수행하는 동안에 나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있어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세상 속에 들어가서 삶의 현장인 직장이나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많은 일들과 부딪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라이프스타일이 활성화되는 선민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함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굳게 닫혔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닫았다고 공격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리고 성은 이중벽으로 바깥의 벽이 4m 높이로 여리고 성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벽이 35도 정도 기울어져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어오르면 반드시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두꺼운 외벽이 둘러싸여 있는 이 여리고 성이 그 당시에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게 닫아버리면 공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을 공략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왜 저러고 있나 싶을 정도로 특이한 대열을 갖추어서 엿새 동안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같은 모습의 대열로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긴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백성 전체가 함성을 울리고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특이한 대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데, 할례와 유월절과 군대 대장으로 특징지어지고 내용이 갖추어지는 선민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어 질 수 있겠는가를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 괴상한 대열의 기준은 역시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일곱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들고 서게 됩니다. 그 나팔 든 일곱 제사장 앞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서서 가고, 법궤 뒤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주력부대가 따르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선두에 선 무장한 군사들입니다. 아마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얻은 두 지파 반에서 선출된 4만 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장하고 선두에 서서 나아가고 있지만 앞에는 싸울 상대가 없습니다. 보통 싸움은 적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서긴 했지만 군사들의 눈앞에는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바로 그들 뒤에서는 일곱 제사장들이 뒤따라오며 계속해서 양각 나팔을 붑니다. 행진하는 앞쪽으로는 적이 없는 상황이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니, 자연히 마음이 뒤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쓰는 나팔은 원래 양각 나팔(양의 뿔로 만듦)이 아니라 은을 녹여서 만드는 은 나팔입니다. 은 나팔 소리에 맞추어 사기충천해서 눈앞에 보이는 적을 향하여 앞으로 돌진해 나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각 나팔은 전진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나타나고 어떤 대상이 출현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양각 나팔이 들릴 때에 이스라엘의 올바른 반응은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면서 도대체 누가 나타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대열의 맨 앞에서 무장한 군사들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므로 뒤로 마음을 써야 됩니다. 뒤에는 기준점이 되는 법궤가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지만 신경은 뒤로 쓰고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고 결국 법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면서 적을 안중에 두지 않고 법궤를 증거 삼아서 그 증거가 가리키는 하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 한 바퀴 씩을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과제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민의 라이프스타일의 세 가지 요소가 활성화되고 충족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여리고 성 같은 일이 주어지면 그 문제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그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나 마음으로는 법궤를 증거삼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대열은 처음부터 실제 싸움을 염두에 두고 구성된 대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궤 뒤에 따라오는 주력부대도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고 있는 한, 양각 나팔을 부는 쪽을 바라보면 법궤가 보이므로 법궤를 지나쳐서 뛰쳐나가 싸울 수 있는 대열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와 내가 직접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법궤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 삼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선 내 앞에 이 세상에서의 일이 주어져 있지만 이 일이 잘되고 못되고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장 군사 뒤쪽에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제사장 뒤에 법궤가 있고, 또 법궤 뒤에 주력부대가 있는데 계속해서 걷는 동안에 여리고 성이라는 세상 문제와 내가 함께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은 법궤를 증거삼아서 법궤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문제가 동쪽으로 해결되든 서쪽으로 진행되든 북쪽으로 후퇴하든 남쪽으로 전진하든 내 행복과 기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궤가 하나님의 증거인데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돌판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십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라고 합니다. 침묵 명령을 강조에 강조를 더합니다. ‘외치지 말며’라는 말은 흥분해서 나오는 말 한 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라는 말은 서로 대화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 생각을 여리고 성에 대한 지금의 상황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돌판이 증거 하듯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생활문제인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므로 우리의 생각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호불호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바람을 죽이고 마음속의 생각 자체를 침묵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침묵하며 ‘칠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리고 성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 같은 나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의 평강의 근거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분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 성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하십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문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합쳐지면,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리고 성을 돈다.’는 것은 내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의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전개되든지 내 마음의 기쁨과는 상관이 없다고 고백하므로 상관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리고 성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의 시간이 일곱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기도입니다.

선민의 라이프스타일의 실제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수행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한 우리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여리고 성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 자녀를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우선 자녀의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결정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보냅니다. 그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앞에 있는 자녀의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일에 기도를 통해 참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사장님과 대화를 할 때에 보통은 다른 사원들이 사장님을 만날 때 사장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사장님에 대한 바람과 생각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나를 해고시켜도 내 궁극적인 삶의 행복과 기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달린 것이지, 사장님이 나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는 사장님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의 문제와 무관해지지만, 내가 궁극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마음에 모셔 들인 하나님은 사장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온통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주님과 무관하지만 그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해 마3:17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과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의 행복과 만족에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내 본래의 소유와 기업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내 바람, 내 생각, 내 계획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십자가 생활화가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수행되어 가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말씀이고 나팔소리이고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지금 네 앞에 있는 문제는 너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성공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너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밀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이지 세상일과 너는 아무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상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서클을 도는 것이고 이 서클을 도는 것이 여리고 성의 기도를 통해서 예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동선을 기도로 따라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인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서 나타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의 이야기가 거듭 반복해서 나옵니다. 라합은 창녀이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준 매국적 행위를 한 것 같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실상 내용을 보면 자기 조국 여리고를 이 땅의 다른 민족에게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증거삼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조국을 넘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리고 성을 가운데에 두고, 이스라엘이 일곱 바퀴를 도는 모습은 적대국인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얘기가 여기서 씨줄과 날줄로 섞여서 나오는데, 라합의 경우는 여리고 성이 사랑하는 조국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나 좋아하는 대상이 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들이 나의 일이 될 때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몸과 건강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사랑하는 조국을 하나님 뜻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자기의 바람은 없애버립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생각이 없어야 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흥분한 상태에서 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수 같은 일을 대할 때에 미움으로 반응하지도 말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면서 대하든지 사랑하면서 대하든지 그 일에 매여 버리게 됩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없어진다고 내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잘 풀린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행복은 원수나 사랑하는 대상과는 상관없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대상뿐만이 아닌 미워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 따라서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잘못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잘되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주어질 때마다 '십자가에서 너는 죽었다'라는 복음의 양각 나팔 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상번제에 담겨지고 상번제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관심의 대상으로 만나더라도 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통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고후4: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고전15: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억해내서 죽는 유월절이 살아나고 상번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관심사가 되고 주님을 따라서 마음이 올라가게 되면,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만난 평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의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내 기쁨의 궁극적 근거이고 이유가 되십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각하신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여리고 기도의 완성본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꿰뚫으시고 그 성경 전체를 함축적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생활 속에서의 기도로서 주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담겨져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 계시니 하늘로 추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리고 성의 문제가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백성에게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와서 말씀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나오면 일단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달이 있으라고 하면 달이 있고, 해가 있으라고 하면 해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침묵하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계신데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으시다면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늘 여리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승진이 문제가 될 때에 승진과 나의 행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으로라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거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지만 적을 보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승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승진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거나 되거나 내 평강과 기쁨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승진이 목적이 아니라 승진이라는 계기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고, 자식이 목적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계기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아프든 건강하든 그것을 통해 하

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사업을 해도 무조건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만 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온전한 선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선민다운 삶이 있고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리고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림을 통하여 사람들이 볼 때에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이 우리 모두에게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